지

주체 1 1 2 (2023)년 6월

토요일

음력 4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일 강 일 떠 세 우 자 ! 국

유서도 깊고 자랑도 많 은 아름다운 평양에는 푸 른 비단을 필필이 늘여놓은 듯 도시를 가로지르며 유유 히 흐르는 어머니강 대동강 이 있다.

예로부터 대동강류역은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 강문화가 창조된 곳으로 유 명하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하 는 대동강의 중류와 하류류역 은 맑은 강줄기와 넓고 비옥 한 평야가 있고 물산이 풍부 하며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 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

속

하기에 평양은 민족의 원시 도였다.

이렇듯 평양의 력사가 깊어 수천년, 바로 그 기나긴 세월 속에는 언제나 맑고맑은 대동 강의 용용한 흐름이 있었으니

가는 세월과 함께 무심히 흐르던 이 강이 근로하는 인 민을 위하여, 그들의 웃음과 랑만, 사랑과 행복을 더해주 며 은구슬. 옥구슬이 되여 흐

#### 흐르는 대동깅 인민의 행복 싣고

평양의 대동강반에는 공화 국의 인민들속에 친숙해진 《옥류》라고 불리우는 건축 물들이 많다.

옥류교, 옥류관, 옥류약수 상점, 옥류아동병원…

원래 《옥류》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릉라도앞 청류벽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물결이 구슬같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 름이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던 《옥류》라는 그 이름을 찾아주시고 대동강을 명실공히 인민의 기쁨과 웃음 이 구슬이 되여 흐르는 락원 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그 나날 얼마나 하많은 인민 사랑의 전설들이 태여났던가. 주체47(1958)년 3월 어느날 이였다.

건설부문의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미룰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불렀다고 하시 면서 평양시건설계획에 제2대동 교(당시)를 언제부터 건설하기 로 되여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다리건설은 1961년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되여있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이 아 프신듯 우수경칩에 대동강의 얼음은 풀리고있는데 인민들 의 소원은 풀리지 못하고있다 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 에 동평양에 나가보신데 대 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대동강 웃쪽사람들이 불편하게 에돌 아 출근하고있었다고. 아무래 도 우리가 힘겨웁지만 제2대 동교건설을 앞당겨야 하겠다 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 대 한 수령님께서는 제2대동교건설 을 5개년계획이 끝난 다음에 시작할것이 아니라 5개년계획 기간안에 끝내자고, 그래서

로 되여왔다.

조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수 도였고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

언제부터였던가.

르기 시작한 그날은…

주자고 하시며 혁명도 건설

도 인민을 위해서 하는것이

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과 함께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배는 오늘의 옥류교 위치에 이르렀다.

엷은 새벽안개의 장막이 걷 히면서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 는 모란봉과 릉라도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강안의 량쪽을 가리키시면 서 여기가 어떤가고, 훌륭한 새 다리를 여기에다 놓자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같다고

일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래로는 련광정과 대동문이 있고 우로는 모란봉과 릉라도 의 아름다운 자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데 강반의 경치 또 한 이를데없이 좋은 곳이였다. 이리하여 옥류교는 5개년계

획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건 설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2년후인 주체 49(1960)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공단계에 이 른 제2대동교건설장을 찾으시 였다.

그날 전국의 인민들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 여 천리마시대에 새로 건설 하는 현대적인 다리를 어떻 게 이전시기에 건설한 《대동 교》에 비겨 《제2대동교》라 고 하겠는가고 하면서 다리 이름을 새로 짓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예로 부터 저 릉라도 여울물이 구 슬같이 반짝이면서 흐른다고 하여 옥류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옥류와 부딪치는 저 병풍 같은 돌벽을 옥류병이라고 불 렀다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인 민들이 즐겨 부르는 옥류라는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였다. 《옥류교》!

제 2 5호 【루계

진정 대동강의 아름다움과 공화국인민의 민족적정서를 다 비껴담은 멋있는 이름이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현지지도의 길에서 다리 이름도 친히 자신의 친필로 써주시였다.

대동강을 인민의 강으로 전 변시켜주시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은 비단 옥류교에만 깃들 어있는것이 아니다.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한 폭의 그림마냥 솟아오른 조 선식의 특색있는 기와집인 옥류관과 대극장의 터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직은 평양시민들이 잠자리에서 깨여나지 못했던 이른새벽 몸소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면서 한날한시에 잡아주신것이다.

옥류관준공식의 그날 몸소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류관의 로대 에서 해빛을 받아 금구슬, 은 구슬로 반짝이며 흐르는 대동 강을 바라보시며 이 집은 터 가 아주 좋다고, 참으로 명당 이라고 하시며 그에 어울리 는 《옥류관》이라는 이름도 친히 지어주시였다.

지난 시기 큰물피해도 많 았던 대동강을 그 어떤 자 연피해도 모르는 락원의 강 으로 전변시켜주시려 호안공 사도 진행하도록 하시고 대 동강류역에 서해갑문을 비롯 한 여러 갑문들도 건설하도 록 하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 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동강반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 러퍼지게 하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평양에 시민들의 종합적인 문화생활기지인 창광원을 건 설할 때였다.

당시 창광원에서 소용되는 물량은 대단한것이였다.

수영장과 목욕탕만 한번 채우려고 해도 수천t이 있어 야 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맑은 물로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간 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일군들을 부르시여 동무들이 생각하고있는 안이 있으면 먼 저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한동안 주저하다 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른 나라에서 흔히 하고있는 방법

려과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 기시였다.

제 2 7 5 5호]

이윽고 그이께서는 다른 나 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 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이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 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묵 은 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100% 뽑고 100% 넣는 원칙 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 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 욕탕과 대동강을 쭉 런결시 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 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 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줄 모르는 대동 강의 흐름과 하나로 련결되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이름난 평 양랭면과 함께 온 나라에 소 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 에 맞게 새로 중축하도록 하 여주시고 릉라도를 세상에 둘 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 을 기울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 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에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 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 을 달아 몸소 **《옥류약수》**라 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전거리건설을 몸소 발기하 시고 거리가 대동강반에 솟아 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금 자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 로 이끌어주신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 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탑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 에 큰 분수를 설치할데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형분수가 대동강의 주변환 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 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해당 부문에 대동강물의 수질 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 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 하며 분수를 쏴올리면 주위의 공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 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 람들의 기분도 상쾌하게 할뿐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을것 이라는 과학적인 자료를 받으 신 다음에야 대동강의 대형분 수건설공사를 즉시 시작하라 는 지시를 내리신 가슴뜨거운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대동강은 인민을 위 해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날 과 달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꽃 피우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 여 영원한 인민의 옥류가 되 여 절세위인들의 그 사랑, 그 은덕을 노래하며 굽이쳐 흐

리 교있다 지금도 대동강 푸른 물결 우에 두둥실 떠있는 종합봉 사선 《무지개》호에 오르면 새로 건조된 배를 돌아보시 며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 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 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 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 사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 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 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날의 말씀이 금시 귀전에 들 려오는듯싶다. 그리고 풍치 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 나의 훌륭한 인민봉사기지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 당에 들어서면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식당이름도 《평

# 인민의

은 명당자리로 일러왔다.

한 봉우리들을 병풍처럼 펼 친 모란봉이 솟아있어 그 경 치가 더욱 뛰여나다. 아름다 운 봉우리와 푸른 물결 굽이 치는 큰강이 나란히 펼쳐져있 는것은 평양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걸터앉아 대동강에 대한 시를 읊었다고 한다. 그때 지나가 던 모란봉총각이 **《**아니 선비 님, 모란봉에 앉았으면 모란 봉에 대한 시를 짓지 왜 대동 강만 그립다 노래하는거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선비는 《모르는 소 리, 이 모란봉은 처녀요, 대 동강은 총각이라 사랑을 고백 하는 처녀가 총각을 노래하는 건 응당하렷다.》라고 하였다 는것이다.

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의 위치가 정말 명당자리라고 하시며 오 늘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였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오는 듯싶다.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지난 10년어간에만 도 대동강반에는 릉라곱등 어관, 릉라물놀이장, 릉라 유희장, 문수물놀이장, 류경 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 케트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 롯한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 기지들과 봉사기지들, 현대적 인 새 거리가 일떠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대동강과 그 주변이 통채로 인민의 유원지, 행복의 락원

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과연 평양이 생겨 어느때, 어느 시기에 대동강이 이렇 듯 인민을 위한 기쁨과 행복 의 구슬이 되여 숭고한 인민 사랑의 력사를 싣고 줄기차게 흐른적 있었던가.

그것은 천하의 절승경개도 인민에게 복무하지 않는다면 필요없고 그 어떤 억만금도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 이 없다는 인민사랑을 지니 시고 조국도 산천도 인민에 게 복무하는 인민의 락원 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로고와 헌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위민헌신의 세계가 낳 은 빛나는 결과이다.

## |낀 Ш

예로부터 강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기 좋

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고

명명해주시고 대동강의 풍치

대동강은 그옆에 나지막

옛날 어떤 선비가 모란봉에

이처럼 대동강을 말할 뗴여놓을수 없는 모란봉에 올 라가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고 이 볼수 있다.

아찔한 청류벽우로 길게 늘 어선 성벽, 제일 높은 봉우 리들에 솟아 외적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대로 쓰 이였던 최승대, 을밀대, 군사 들이 드나들며 적을 족치던 칠성문, 현무문…

대동강옆에 우뚝 솟아있는 자랑많은 력사유적 대동문도 수도방위를 위해 세운 고구려 시기의 성문이였다.

이 력사유적들에는 외적의 침입으로 곡절과 수난이 많던 민족의 력사, 대동강반의 력 사가 깃들어있다.

지난 임진조국전쟁시기에도 우리 나라에 침입한 섬나라 의 강도배들은 대동강을 건 너와 평양성을 점령하고 로략 질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인민 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 탈하였다.

국력이 약했던 지난날에는 천연의 자연방패인 대동강도, 모란봉에 높이 쌓은 성벽들도 우리 겨레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었다.

발에 강토를 무참히 짓밟히 게 되고 민족의 운명도 도탄 에 빠지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백수십년전

인 1866년에 미국침략선 《셔먼》 호는 대동강을 거슬 러 평양의 한복판에까지 기 여들어와 재물을 략탈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며 조선봉 건정부를 함포로 위협하여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 해보려고 하였다. 당시 침략자들은 자기들

을 평양성에 들여놓으며 쌀 1 000섬과 많은 량의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으라고 오만하게 행동하였다. 이 강 도적인 요구가 거부당하자 침략자들은 로골적인 략탈 과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침략자들의 오만무례한 행 위에 격분한 평양사람들과 군사들이 펼쳐나 화공전으로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키 였으나 강도적인 미국은 여기 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 신 1868년에는 침략선 《쉐난 도아》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 시켜 대동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평안도, 황해도(당시) 접 경지역의 연해를 오르내리면 서 측량과 정탐행위를 하고 총포사격도 하면서 오만하게 날뛰였다.

그로부터 수십년후 국력이 약한 탓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게 되여 평양의 젖줄기 인 대동강도 수난을 당하게 되였다.

나라없던 수난의 그 세월에 대동강물은 쉬임없이 흘렀으 나 그에 실려 떠내려간것은 겨 레의 비애의 눈물, 처절한 곡 성뿐이였다.

그러나 대동강반에 어리였 우리 겨레의 수난의 운 명은 이제는 먼 옛일로 되였 다. 모란봉의 옛 성벽들과 성 터들도 순수 평양의 력사를 전하는 유적으로만 남아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위 힘을 억척으로 다져주시 여 외세의 침략선은 대동강으 로 거슬러들어오기는 고사하 고 주변바다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의 힘은 그때 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적 대세력들도 우리 공화국의 자 위의 억제력을 보고 두려움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대동강물 굽이쳐 출렁이는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 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에서 예 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 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

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 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 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 고있다는 뜻깊은 연설을 하 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 사랑에 의해 더욱 억척으로 다져진 최강의 군력이 존엄높 은 공화국인민의 삶을 지켜주 고있기에 오늘 대동강은 영원 히 침략의 발길이 닿을수 없 는 존엄의 강, 평화의 강, 락 원의 강으로 되였으며 인민 은 그 어떤 전쟁불안과 위구 도 모르고 기쁨과 랑만의 웃 음만을 아름다운 대동강물결 우에 실어가는 행복한 인민으 로 누리에 그 존엄 더욱 빛나 게 되였다.

오늘도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광장에 서서 대동강쪽 을 바라보면 창공에 높이도 솟은 주체사상탑이 한눈에 안 겨온다.

낮에도 빛나고 밤에도 봉화 가 타오르는 주체사상탑, 그 탑은 인류사상사의 최고보물 고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비상한 견인력을 세 계만방에 과시하는 탑이다.

탑의 높이는 한눈에 안겨오 지만 그 빛발은 위도와 경도 를 넘어 전 세계를 환히 비쳐 주고있다.

그 웅장한 자태를 비껴싣 고 오늘도 출렁이며 흐르는 대동강, 그 물결우에는 비로 소 인간이 자기를 알게 하고 인민이 자기 운명개척의 힘있 는 주인이 되게 해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이 실려있다.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현실

로 꽃피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 대동강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 을 담아싣고 줄기차게 흐르 고있다. 강 한가운데서도 인민의 행

복이 꽃피고 드넓은 강기슭의 그 어디서나 사계절 인민의 웃음소리 들려오는 대동강.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주체 사상탑이 높이 솟아 빛나고 강의 량안에는 인민의 존엄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득 넘 쳐나는 대동강반이야말로 정 녕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 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 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는 대로천박물관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 으신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대동강은 앞으 로도 영원히 인민의 강, 행복 의 강으로 빛을 뿌리며 세월 의 흐름과 더불어 끝없이 물 결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철



# 이것이 공화국특유의 또 하나의 사랑이고 힘이다

사 랑 과 충성 의 보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생 각이나 소식을 적어 상대방에 게 전하는 편지.

여기에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충성의 력사가 비껴호 른다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믿기 어려울것이다.

허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과 충 성의 퍾지의 력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면면히 흐 르고있다.

이를 통해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된 공화국특유의 또 하나의 모 습을 엿볼수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소 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 어달리기대렬들에 넘쳐흐르 던 어버이에 대한 끝없는 그 리움의 물결, 그 품을 찾아 달리고달리던 힘차고 담찬 모 습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편지 와 함께 사랑과 충성의 력사 가 시작되것은 새 조국건설의 노래소리 높이높이 울리던 그 때부터였다.

- 《…나는 토지분여받은 북조선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민주국가창건에 일야 분투하시는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감사와 결의를 표하 는바입니다.

나는 극빈농가의 둘째아들 로 태여나서 3년간이나 머슴 살이를 하였으며 생활에 시 달리고 지주와 왜놈들의 착 취와 압박에 못이기여 고향 을 떠나 신천을 거쳐 재령 군 삼강면에 와서 해방전까 지 비참한 소작인생활을 계 속하여왔습니다.

…8.15해방을 맞이하여 영명하신 김일성장군의 지도 밑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 토지개혁실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혜택으로 처음으 로 토지의 주인이 되였으며 그 혜택으로 살림살이가 넉 넉하여졌고 자유로운 행복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 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혜 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마 음과 인민정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아울러 김일성장군에 대한 감사는 끝이 없습니 다. …》

- 《…과거 암흑한 속에서 착취를 받던 우리 로동자, 사 무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로 동법령을 발포하여주시니 한한 감사의 뜻으로 량손을 높이 들어 이 법령을 지지하 는바입니다. 먼저 토지개혁을 완수하시고 20개조정강을 발 표하신 후 이번에 또 20개조 정강중의 14조, 15조에 근거 하시여 구체적으로 되는 이 로동법령의 내용을 보고 감 사하는바이오며 이에 보답하 는 길은 우리 로동자, 사무원 들의 생산돌격인것을 깊이 명 심하며 저도 한개의 로동자로 서 장군에게 무한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올리는바입니 다. 민주주의건설산업부흥에 제 생명을 다 바치여 싸울것 을 맹세합니다. …》

- 《····특히 저희들 녀성들 이 남자들과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마음껏 일 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을 아뢰이면 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 여 앞으로 더욱 많이 일할것 을 맹세하는바입니다. …》… 이것은 토지개혁법령발포 후 황해도 재령군 삼강면 설

산리(당시)의 한 농민과 해 방된 이듬해 로동법령을 받 아안은 로동자 그리고 문맹 퇴치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에 우리 글을 배운 기쁨과 행복을 안고 리계산녀성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삼가

올린 편지의 내용들이다. 비록 요란한 표현은 없어도 편지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볼 수록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 을 찾아주시고 꿈같은 행복 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끝 없는 고마움의 격정으로 어깨 를 들먹였을 이 나라의 농민들 과 로동자들, 녀성들의 모습이 눈에 어리여오고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위해 한몸 다 바치려는 그들의 꾸밈없 는 진정을 느낄수 있다.

해방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 드 리는 감사의 편지들속에는 어 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있

《…해방이 되자 어른들은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있으나 우리 소년소 녀들은 활동하지 못하였는바 오늘 비로소 민주소년단을 조 직하게 되였습니다. …

우리는… 오늘 조직한 소년 단을 더욱 굳게 하여 나라일 에 힘을 쓰려고 결심합니다. …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완전독 립 만세…》

통

이것은 주체35(1946)년 6월 6일 당보에 실렸던 편지의 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 을 맞이한 인민들과 아이 들이 삼가 올리는 수많은 편지들을 보아주시고 몸소 회답까지 써보내주시는 크나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속에는 재령땅의 한 농민

이 애국미 30가마니를 싣고 찾아왔을 때 훌륭한 애국적 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 고 그를 댁에서 만나 고무해 주시였으며 그와 재령군농민 들에게 친히 감사편지를 써주 신 사실도 있고 까막눈을 틔 우고 제손으로 한자한자 정히 편지를 쓴 한 녀성에게 누구 나 이악하게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회답편지를 보내주신 사실도 있으며 이 땅의 수많은 아들 딸들이 감사의 정을 담아 올 린 편지들에 회답장을 보내 주신 이야기들도 있다.

해방의 감격에 목메여 인민 들은 수령께 삼가 감사의 편 지를 올리고 수령은 인민들 의 깨끗한 진정을 소중히 여 겨 친히 회답까지 보내주신 이야기, 이렇게 이 땅에서는 수령과 인민사이에 오고가는 편지의 력사, 사랑과 충성의

편지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

사이에 오고간 편지의 력사 는 그처럼 가렬처절했던 조국 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 치고합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열화같 은 믿음의 서사시가 되고 자 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 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답의

그속에는 바다멀리 이역땅 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도 있었다.

대하가 된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 십년전 모란봉경기장(당시)에 서 진행된 어버이수령님께 드 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 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재일동 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 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리 군 한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 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재 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 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재일 동포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 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 의 편지를 정중히 드리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들이 드리는 편지들을 받으 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 겁게 잡아주시였다.

이런 사랑과 충성의 편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인민 들사이에도 뜨겁게 오고갔다. 오늘도 나라의 방방곡 곡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주고있다. 《산울림주인공들처럼 나 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기를

김정일장군님의 친필들은 사

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바랍니다 정 2011. 1. 18》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 에 래여난 애기이름을 축복이 라고 지어줍시다

김 정 2002. 7. 23.>>

글 들 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 전천군 에 파견된 12명의 제대군인들 과 비전향장기수의 가정에 친 혈육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 시며 목소 회답해주신 사랑의 친필들이다.

이뿐이 아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상원 세멘트련합기업소, 흥남비료 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 위의 종업원들과 대홍단군과

군 범안리의 제대군인부부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한자두자 쓰시여 보내 주신 사랑의 글발들을 받아 안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그 어디에나 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인민들,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들사이 에 오고간 사랑과 충성의 편 지의 력사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 이 모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바람 사나운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 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 다. 못잊을 그날 풍요한 가 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 풍을 안아오라고 고기배의 이름도 《단풍》 호라고 지어 주시며 물고기잡이계획을 수 행하면 자신께 편지로 기쁜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따뜻 한 어버이정을 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물고기대 풍을 찍은 사진과 함께 수산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올린 편

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북방의 한 녀인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 시고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 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

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

자강땅의 제대군인들, 서흥 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고 한 소년단원이 많은 파철을 수집 하여 인민군대에 《소년》호 땅크를 만들어보내는데 기여 한 자랑을 적어 삼가 올린 편 지를 목소 보아주시고 정말 기특한 일을 했다고,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목과 마음 을 튼튼히 다져 꼭 일당백땅 크병이 되라는 사랑의 친필

을 보내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갖가지 자랑과 움터나는 희 망을 아뢰인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한 조선의 딸, 일당백땅 크병, 미술가, 과학자, 음악 가가 되라고 정을 담아. 축복 을 담아 써보내주신 사랑의 친필들과 평범한 로동자, 농 민, 청년들을 비롯하여 그이께 스스럼없이 자기들의 마음속 생각을 터놓고 그이께선 그들 의 편지마다에 사랑담아, 정 담아 회답을 써주신 이야기 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흘러온 인류력사와 더불어 전해지는 편지와 관련한 이야 기들도 허다하지만 공화국에 서처럼 인민은 령도자를 끝 없이 그리고 따르며 한마음 다해 받들어모실 맹세를 담 아 쓰고 또 쓰고 령도자는 인민의 다함없는 그 마음에 더 큰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 시는 그렇듯 열렬하고 뜨거운 혈연의 정의 서사시를 력사는 일찌기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모습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과 충성의 편지!

이는 수령과 인민사이에 흐 르는 불보다 뜨거운 혈연의 정이고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진함없을 열화의 사랑과 불 타는 맹세의 글발이며 이 땅 을 무궁번영하게 하는 또 하 나의 거대한 힘이다.

세상에 없는 혼연일체, 일 심단결의 힘에 떠받들려 공 화국은 나날이 번영하는 사 회주의조국으로 높이높이 솟 아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절세위인들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모시여

오는 6월 19일은 위대한 되였다. 인민군대가 조선로동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 하신 59돐이 되는 뜻깊은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 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 고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 에서 새로운 전변과 끊임없 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가 최상 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조 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혁 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년전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 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 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 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 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 된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 하신것은 민족자주위업의 승 신 다심한 사랑의 손길에도 을 새시대 당건설방향으로 리를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 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인 민을 총궐기시킨 정치적사변 이였다.

당을 령도하여오신 나날 그이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조선 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본태와 성격을 고수하고 존 엄과 위용을 펼쳐나갈수 있 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 였다.

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 하던 어려운 나날에 선군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 니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 모신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에 의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이 금문자로 빛나고있다. 시대정신으로 나래치고 인민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드 는 억척의 지지점으로, 조선 로동당기를 제일군기로 들고 나가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 났으며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스승이였으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은 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적기 였다. 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 위대한 장군님은 그 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으며 힘을 얻군 하시였다.

의 숭고한 리념은 《인민을 획기적전환을 이룩한 중요한 위민헌신의 숭고한 정치리념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 계기들이였다. 특히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 호에도 뜨겁게 깃들어있고 10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 어리여있다.

>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 의의를 가진다. 은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삶의 품으로 천만인민의 심 였다.

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되게 되였다. 못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 며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로 정식화하시고 당사업과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 과 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당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 를 확신하고있다. 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신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있다.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 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 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 로 선포하시고 수많은 로작들 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 을 발표하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 업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시

제8차대회와 함께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당회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 의들은 당의 강화발전에서 학교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기념강의 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 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 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 새롭게 제시하신것은 조선로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특출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시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영원한 대 당건설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심으로써 최장의 집권 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 사를 기록하고있는 존엄높은 속에서도 사회주의집권당건설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 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고 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반만 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하에 힘있게 펼쳐올수 있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 었다. 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승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 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 고있으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령도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과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기 풍이 서게 되였다.

수재민들은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한 감동깊은 이야기, 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 대비상방역전의 나날 인민군 한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 대가 인민의 생명수호와 건 동당 제7차대회, 조선로동당 강보호를 위해 용감성과 희 생성을 발휘한 가슴뜨거운 화 폭을 비롯하여 만사람의 심금 을 울리는 수많은 사실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민위천, 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 고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 고있으며 1년이면 강산이 변 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 이어 창조되고 인민의 행복 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가고 있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로동당 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난판 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줄기차게 인도하며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령도에서 온 나라 인민은 필

서 충 혁

인민이 바라고 념원하는것이라면 천가지, 만가지 기적과 변혁을 모두 이루어내고 인민의 고충과 아픔을 가 셔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공화국은 인민 대중제일주의의 정치경륜을 이 땅우 에 아로새겨가고있다.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참가자들 (2023년6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 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 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 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 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 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 현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 ■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해오신 국가 건설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 되여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 설사상에 의하여 공화국정권은 인민 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 7 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 건설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력사 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에 있어는 기 하는 그 그 그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일 떠서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이 나라 인 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 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 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오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 여 공화국의 공고한 정치풍토, 국풍으 로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인민 의 리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줄 기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과 실천강령들을 제시하시고 인민 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로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고계시는분 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에 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 고 강국의 공민된 인민의 자부심 이 비상히 승화되고있는것은 인민대 중제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 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도 세련 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 의 면모는 인민의 운명과 생활, 미래

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퍼주는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 고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공화 국이 최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활동 원칙이다.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 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 건위기상황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건 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시 적인 대책들을 끊임없이 취해나가는 데도 어려있고 어려울수록 인민들에 게 더 큰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천 신만고를 다하며 분투하는데서도 찾 아볼수 있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 서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 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이 통이 크 이 철저히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 게 벌어지고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 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 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 진되고있으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 기는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인 변화 를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지난해와 올해만 하여도 수도 평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 서고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새 교복을 받아안은데 이 어 나라의 문명부흥을 앞당기는데서 되여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환호성 이 터져오른것은 인민을 위한 공화 국정부의 헌신적복무가 얼마나 숭고 한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인 정책은 결코 조 하게 구현되고있는것이 아니다. 이것 고있는 인민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 지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 주는것을 더없이 신성한 의무로, 영 예로 여기며 모든 활동을 여기에 철 니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천만자식들 의 생명과 생활, 미래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조국이 있 기에 공화국인민은 천만대적이 달려 들어도 두려움을 모르고 그 어떤 재

난이 닥쳐와도 비관을 모른다. 의 면모는 인민의 지위를 최상의 경 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비

상히 높여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되

고있다. 인민을 신성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 인 민이 자기 운명과 국가주권의 주인으 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역할을 다해 드는 공화국의 진모습은 세계적인 보 나가는 나라만이 참다운 인민의 국

가라고 말할수 있다.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 안으시고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려정 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의 모 든 사업은 인민사랑으로 일관되고있 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 대성하여 작성되고있으며 정권기관들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누구나 사회 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 적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사 회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나라의 물질적재부를 늘이는데 지혜 양에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송 와 정열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창조된 화거리 1만세대 살림집, 화성지구 모든 재부는 철저히 인민의 복리증진 에 돌려지고있다.

오늘 공화국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라는 자각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깨 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전체 인 변혁적의의가 큰 중요대상들이 완공 민이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며 열렬한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해나 가기에 공화국은 맞다드는 도전과 장 애를 과감히 부시며 강대한 나라로 끝없이 솟구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 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건이 유리하고 무엇이 풍족해서 일관 인민은 신심에 넘쳐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격난속에서 은 사회주의조국에 모든것을 의탁하 도 인민은 공화국정권을 굳게 믿고 국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절대지 지하며 받들어나가고있다. 준엄한 시 기에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 창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인민의 저히 지향복종시켜나가는 국가가 아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 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는 공화국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생활로 체 험하며 그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긴 이 나라 인민이다. 참다운 인민관, 인민철학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조선로 동당과 공화국정권의 유일한 존재방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 식으로 되고있기에 공화국인민의 앞 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백명일

지금 공화국의 농촌마을들 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도 새집들이경사가 런이어 펼 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 고있다.

지난 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의 여러 농장마을들에 새집 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2월과 3월, 4월과 5월, 6월에 들 어서서도 온 나라 방방곡곡 에 새시대 사회주의농촌진흥 의 요구에 맞는 문화농촌마 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고있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고있다.

《너무도 꿈만 같아 새 집에 선뜻 들어설수가 없습 농장의 모든 농 장원들이 이렇게 한날한시 에 멋쟁이 새집을 받았습니 저렇게 남녀로소모두가 흥겨운 춤판을 떠날줄 모릅 니다.》

**(**0)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국가가 농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는 그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년벌로 만들어 나라의 은 덕에 기어이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없

한한 새집들이경사가 났으니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슨 말로 고마움의 인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장원들모두가 올해에 는 어떻게 하나 풍년로적가리 높이높이 쌓아올릴 결의 로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들이 저마다 터치는 이 격 정의 목소리는 이 땅에 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 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 이고 그 품에서 사는 복받은 농업근로자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의 토로이다.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행복 한 삶을 누리고싶어하는것은 사람들 누구나의 소중한 꿈 이고 소원이다. 그 꿈과 소원 이 이 땅에서는 도시에서뿐 아니라 농촌지역마다에서도 현실로 꽃퍼나고있다.

사시절 포전에 살며 이 땅 에 애국의 량심을 묻어가는 농업근로자들

으로, 새시대 농촌진흥의 참된 주인들로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에 떠받들려 땅에 장엄한 농촌진흥의 시대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 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 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 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 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 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 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 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 시며 가장 엄혹한 도전과 난 관이 중첩된 시기에 농촌진 흥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놓 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건설에 서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의의를 통찰하시고 새로운 주 체100년대의 첫 시기부터 원 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무르 익혀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다.

지방건설을 주체적건축미학

잘 살리며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문제,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강화 할데 대한 문제, 먼저 표준 군들을 잘 꾸려 전형을 창조 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 안지대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 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시던 령도 의 나날에 제시하신 농촌건 설방략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 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사회주의농 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 심과업, 조선로동당과 국가 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 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밝히 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 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 을 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 업으로 제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촌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맛이 나 사상에 준하여 자기 지대의 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 화성, 한 문제, 설계력량과 건설력 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 비를 갖출데 대한 문제, 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 기 위한 과업, 농촌건설을 당 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한 문제, 주유자재들과 마감 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 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 들을 꾸릴데 대한 문제를 비 롯하여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해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 촌혁명강령이 지체없이 실행 되도록 농촌살림집건설을 위 한 시, 군건설려단조직과 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도 록 하시였다.

이 나날 농촌살림집건설과 관련한 2 000여건에 달하는 설계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 였으며 농촌건설용세멘트를 시, 군들에 전진공급하기 위 한 수송수단, 수송방법과 보

**과무제에 이리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 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 돌려왔다고 말씀하시 면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시 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농촌고유 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성 과 미학성이 보장되게 다양하 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남 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은 문화 농촌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 유하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 게 되였다.

정녕 전변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변혁적실체들 앞에서 사람들은 가슴뜨겁 게 안아본다. 그 실체들마다

민사랑, 심혈과 로고의 낮과 밤들을.

공화국의 각지에 련이어 그 림처럼 황홀하게 펼쳐지는 농 촌마을들의 이채로운 새집들 이풍경은 농업근로자들을 문 화농촌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보람찬 삶을 누리 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지금 공화국의 농촌들에서 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 한 발관개공사를 비롯한 올 해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 달성되여 가물피해를 많 받던 고장에서도 물고생 을 모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되였다.

하기에 모든 농업근로자들 은 인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야 말로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고 바람도 비도 다 막아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

정의 눈물을 쏟고있는것이다.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 믿음을 날에날마다 받아 안으며 이 땅의 모든 농업근 로자들은 지금 더 높은 알 곡중산으로 보답하려는 열의 로 심장을 끓이며 산악같이

이라고 하면서 고마움과 격

일떠섰다. 풍년로적가리를 높이높이 쌓아 나라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자! 이것이 이 나라 농촌지역들마다에서 울려나 오는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그 맹세를 지켜 전 야마다에 티없이 깨끗한 량 심을 묻고 성실한 땀을 바쳐 가고있다.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농업근로 자들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 의 땀방울에 실려 이 땅에선 사회주의농촌문명이 날로 꽃 피고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펼쳐진 행복의 보금자 리들에서 울려나오는 농업근 로자들의 웃음소리, 사회주 의만세소리는 하늘가에 높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리일 현

















현실이 아닌가. 과연 내 집마련을 위해 얼마 만한 땀을 바쳤던가 하는 생 각으로 죄스러워지는 마음을

의사회 어디서나 비일비재한

생각을 톺아가느라니 나는 어쩔수 없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나 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나에게도 덩실한 새 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얼마나 고마운 우리 나라

평양시에 당의 은정어린 1만세대의 송화거리가 일떠서

복한 사람이였다. 아니 당의 크나큰 은정을 매일 매 시각 받아안으며 사는 우리 인민 모두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 해야 할 행복의 주인공들이 라 불러야 할것이다.

후더워오르는 마음으로 집 문앞에 이른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 귀에 익은 안해의 목소리, 행복에 겨운 그 목소리와 함 께 집문이 열리였다.

《혼자서 집을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안해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혼났소. 하지만 이런 〈고생〉이라면야 백번인들 마다하겠소. 정말 행복의 우리 집이고 행복의 우리 세

상이요.》 밝고 아늑한 우리 집안으 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나 의 마음, 아니 온 나라 인 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아침해가 찬란한 우리 조국은

인민들이 주인된 행복한

나라

들려왔다.



공화국에서 생 산되는 국내최우 수제 품들중에는 여러가지 놋제품들

도 있다. 예로부터 슬기롭 고 문명한 우리 선 조들은 전통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놋 제품들을 많이 만 들어 사용하여왔 다. 그중에는 신선 로, 랭면그릇, 밥 그릇, 국그릇, 숟 가락, 저가락, 주 전자와 같은 놋집

기류들도 있다. 쓰였다고 한다.

0

문

공

면 조선봉건왕조시 기까지도 우리 겨 레는 밥, 국, 나 물, 찬 등 모든 음 식들을 놋그릇에 담아먹었고 세수대 야나 시루, 화로까 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물 을 채운 독안에 놋 그릇을 넣어두어 물을 정제 하였고 절임음식을 만들어 단지에 담고 가운데 놋을 박 아넣어 음식물의 부패변질을 막았다고 한다.

얼마전 우리는 예로부터 륭히 만들어내고있는 보통강 세공품을 현상케 하는 놋집

주방설비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김 복성지배인은 공장의 연혁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 은 창립당시 자그마한 생산 첫발을 뗐다 협동조합으로 고 한다.

그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 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 적인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 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 로 여러 생산공정들을 현대 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에 적극 의거 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활발히

우리 겨레가 즐 운영하여 누구나 일하면서 겨 사용해온 놋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 제품들은 사람들 여 마음껏 배우는 과정에 많 의 건강에도 좋고 은 종업원들이 기술자, 기능 균을 죽이는데도 공대렬에 들어서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 력사기록에 의하 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는 것이였다.

>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는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 을 돌아보았다.

가공작업반, 프레스작업 반, 공무작업반 등 생산현장 들에서는 로동자들이 놋제품 지도 놋으로 만들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눈길을 끈것은 세공

작업을 진행하는 기능공들 의 섬세한 손놀림이였다. 이 들에 의해 잠간사이에 진달 래꽃이며 포도송이를 비롯 한 갖가지 세련된 무늬들 이 놋집기류들에 새겨지고

있었다. 부드러운 색갈과 은근한 광 택, 여러가지 섬세한 장식부 전해져오는 놋집기류들을 훌 각으로 하여 하나의 정교한 기류들은 볼수록 훌륭했다.

이들에 의해 손색없이 완 성된 놋집기류들을 보며 감 탄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놋집기 류들이 2월2일제품등록증과 상장을 수여받았다고 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전시회들에서 우수상을 받 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놋집기 류들은 평양제1백화점과 평 양역전백화점을 비롯한 여 러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 되고있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쓰기에도 편리한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공장에서 40여년째 일해온다는 선반공 조경희녀 성도 만나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 에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넋 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군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대앞 에 설 때마다 조국과 인민앞 에 부끄럽지 않게, 저의 량 심이 깃든 훌륭한 제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일하고있습니다.》

비록 말은 소박하여도 민 족의 재부를 지키고 더욱 빛 내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 는 이곳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자기들이 만드는 놋집기류 들이 공장을 대표하는 인기 있는 명제품으로, 사람들 누 구나 즐겨 찾는 명상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 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 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 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며 우리는 공장

본사기자 김 진 혁



을 나섰다.

벌써 몇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른다.

《화성거리 화성1동 19인민 반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도 제 집을 찾아 간다는 말만은 차마 입밖으 로 나가지 않아 우물우물하 며 새집을 받은 친구를 찾아 가는 흉내를 내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제 집을 몰라 거리를 헤매 는 이런 한심한 세대주가 세 상에 나 말고 또 있을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이지만 나로서는 어쩔수 없 다고밖에 달리 말할수가

석달가까이 지방에 출장을 나간 사이에 화성거리 새집 을 받고 안해 혼자서 이사를 하다보니 안다는것은 집주소 뿐이였고 TV로 그처럼 눈에 익힌 새 거리이건만 처음으 로 밟아보는 나는 그대로 관 청에 온 촌닭신세가 아닐수

없었다. 안해가 마중나오겠다는것 을 혼자 찾아간다고 우겨댄 것이 후회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웅장화려한 새 거리, 이제는 나의 집이 자리잡은 《나의 거리》를 발목이 시 도록 거닐어보는것도 참 즐 거운 일이라 힘든줄 몰랐고 얼굴에선 웃음이 가실줄 몰

《간난신고》끝에 화성 1동 19인민반이라는 현관명판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심정 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선뜻 아빠트 현관안으로 들어서기 저어하며 옷깃을 다 시 여미는데 현관문으로 나오 던 한 중년의 녀인이 누구를 찾아오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나는 얼굴의 땀을 훔치며 처음으로 버젓이 대답했다.

《내 집 3층 1호를 찾아왔

습니다.》 그리고는 주소만 가지고 새 집을 찾아오느라 땀개나 뺐 다고 우스개소리를 덧붙였다.

요.》 동네아주머니의 의미심장

한 말에 멋적은 웃음을 남기 고 현관으로 들어서는 나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졌다. 제 집을 찾지 못해 한나

절이나 헤매고 다닌 집주인, 참 웃지 않을수 없는 일이지 만 왜서인지 가슴은 뜨거워

> 남조선에서는 자기 집마련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을 위해 일생동안 피땀을 바 치고도 꿈을 이루기 힘들어 하는데 나는 이 거리의 완공

> > 있었던가.

만 했다.

였다. 그래도 신혼살림이라 둘이 서 오붓하게 살아보고싶은 생각, 부모들의 슬하를 떠 나 당당한 세대주의 《권리》 를 행사해보고싶은 욕망이야 왜 없었으랴만 부모님들앞에 서도 내색해보지 못한 마음 속욕망이 현실로 되여 선경 의 새 거리에 나의 집이 생 길줄이야.

리고 나와 안해 이렇게 4명

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전

여서 큰 불편을 모르던 나

간단없이 사색의 가지를 퍼나가느라니 어느한 출판물 에 실렸던 기사의 한대목이 떠올라 페부를 파고들었다.

저기 남쪽땅에서 한평생 을 다 바쳐서도 이루지 못 한 《내 집마련의 꿈》을 천 추의 한으로 남긴채 저주로 운 세상을 떠난 기사의 주인 공의 비참한 운명이 눈앞에 밟혀왔다.

무슨 일인들 못했으며 무 슨 고생인들 겪지 못했으랴 만 끝내 이루지 못한 꿈, 이 루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저 주와 절망으로 화하여 끝끝 내 피로 적셔야 했던 《내 집 마련의 꿈》.

희한한 고대광실도 아닌 단 한칸이라도 족할 내 집, 그 쪽방마저도 한생을 바쳐 서도 얻을수 없는것이 바로 《참 행복한 집주인이구만 기사의 주인공이 사는 남쪽

고 이해에는 화성지구에 또 희한한 새 거리가 일떠서서 부러워하였지만 내가 그 거리 의 주인이 될줄은 꿈에도 생 실까지 달린 3칸짜리 집이 을 위해 흙 한삽 떠본적이

> 새 거리가 일떠서는 건설장 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 진 인생의 크나큰 기쁨. 렬한 건설전투가 벌어지고 너 도나도 이곳에 달려와 애국 의 구슬땀을 바쳐갈 때 나는 솔직히 사무실에만 앉아 그 였었다. 곳 건설자들에게 따끈한 물 한번 권해본적도 없다. 그 이 고마운 우리 사회 말고 저 나날이 치솟는다는 건설 장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 아볼수 있겠는가.

각지 못했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집이 어 디쯤에 자리잡고있는지도 모 르는 행복한 《바보》가 되 이런 가슴뭉클해지는 풍경

그런 생각을 하니 량심에 안는 사랑과 혜택이 얼마나

너무도 생각밖에 받은 행 복, 너무도 꿈만 같이 차례

이 행성 어디에 가서 또 찾

참으로 나는 지금껏 받아





더불어 그의 이름도 더욱 유

하지만 오영재선생은 위대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불

타는 창작의 열정으로 낮과

밤을 보내던 그는 불치의 병

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걱정보다도 어머니조국을 위해

한편의 시라도 더 쓰지 못하

70고령의 생을 두고 짧다

고 생각한적이 한번도 없었

던 오영재선생이였지만 그때

만은 꺼져가는 한초한초를

무척 아까와하며 가요 《조

선의 힘》을 한자한자 완성

하늘로 높이 모시고 받든 시

인 오영재선생의 심장이 뿜

어올린 시대의 명곡, 시대의

하기에 오영재선생이 림종

참으로 《조선의 힘》은

는것을 두고 안타까와하였다.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아직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명해졌다.

## 其叫印 黑에서 참된

려운 세대들에 아낌없이 나

누어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에 빠진 드레박을 건져

주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에

그 모든것은 열다섯살의

어린 그가 의용군에 탄원하

게 된 직접적동기이기도 하

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도 진창에도 덤벙덤벙 뛰여

들군 하여 별명이 《덥석》이

였다고 한다. 그러나 의용군

입대를 탄원한 그 의기는 결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덥

석 빠지군 하는 감상적인 용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가자!

오영재선생의 선택은 피눈

물나는 생활의 체험이 내린

용단이였고 비록 단 하루의

새 생활이였다 해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정치가 옳고

공화국제도가 진정한 인민의

세상임을 절감한 열렬한 정의

감이 떠밀어준 선택이였던것

이다. 하지만 그는 북을 향

하여 내짚은 그 발걸음이 앞

으로 자신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줄것이라는것을 꿈에

도 생각지 못하였다.

감성이 아니였다.

대를 보았다.

였다.

메마른 가시밭을 울고울며 네 왔느냐

거친 길 에돌면서 외로웁던 시내물아

불행에 감겨 찢겨진 목을 시름놓고 말긴 곳은 아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고 즐겨 부르는 이 감동깊은 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 진정한 노래가사는 곡절많은 인생길

#### 인 생 의 갈림길에서



작가 오영재선생처럼 인생 길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 며 그 선택이 무엇에 기초 해야 하는가를 실생활체험을 통해 심장으로 절감한 사람 도 드물것이다.

1950년 마가을에 있은 일이 였다.

설악산릉선을 타고 북쪽을 향하여 씩씩하게 행군하는 인민군대렬에서 두 전사가 뗠 어져나왔다.

《잘 생각해봐. 북에 가면 누가 있어?

그러지 말구 고향에 돌아 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조용 히 살자. 아무렴 싸움을 그 만두고 돌아온 우릴 죽이기 야 하겠어?》

이제 겨우 열다섯살이였던 오영재선생에게 함께 입대한 고향청년이 하는 말이였다. 오영재선생의 생각은 착잡

하였다. 앞서간 대오를 따라 북으 로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고향사람의 말대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 아가야 하는가? 갈팡질팡 방황하던

북행길에 오른 한 인민군군 관을 만나게 되였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난 군 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은 인민군대가 기도 하다. 후퇴한다니까 마음이 흔들린 것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최고사령부로 간다.

긴 작가 오영재선생이 창작 한것이다.

하다면 그는 어떤 인생길 을 걸어왔기에 공화국의 품 을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 다라고 목메여 웨치였는가.

주체문학발전에 빛나는 공헌 을 한 영웅시인인 오영재선생 의 값높은 인생은 공화국이야 공화국인민들이 누구나 알 말로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 요람, 참다운 조국이라는 진리 을 걸어 사랑의 바다에 안 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자,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군관동지, 전 북으로 가

## 김일성장군님이시다.



겠습니다.》

였다.

이렇게 되여 오영재선생은 북행길이냐 고향길이냐 하는 오 영 재 선 생 인생의 두갈래 갈림길에서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인 민군대오의 신념의 보무에 자기의 발걸음을 맞추게 되

돌이켜보면 그가 선택한 북행길은 그의 길지 않은 인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생체험으로부터 체득한 진리 의 선택이기도 하였다.

> 1935년 11월 전라남도 장 성군의 청빈한 교원가정에서 7남매의 둘째아들로 출생한 오영재선생은 어려서부터 남 달리 정의감이 강하였다고 한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기고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 야만 했던 그 세월 정의감때 문에 부자집자식들과 쩍하면 싸웠고 그로 하여 부모의 속

을 많이 태웠다고 한다. 1945년 8월 드디여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였다. 하지만 일제를 대신하여 미 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한 남 조선땅에서 그가 맛본것이란 여정히 일제때와 다름없는

착취와 억압, 빈궁과 무권리 뿐이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미군은 결코 《해방 군》이 아니였고 미국제군화 를 신고 미국제무기로 무장

의 군대가 아니였다. 전쟁은 진짜와 가짜를 판 별할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한 남조선군은 진정한 민족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 던 침략세력은 남의 집에 들 어갔다가 주인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도적무리처럼 황황히 남으로 밀려내려왔다.

어느날 가까운 곳에서 서 백성을 위하는 참된 군 쿵- 쿵- 하는 포소리가 들 려오더니 전라남도의 궁벽한 산골마을인 오영재선생의 동 네에도 인민군대가 공화국기 를 날리며 들어섰다. 질풍같 이 달려오던 자동차들이 갑 자기 멈춰섰다. 한 인민군군 관이 달려와 오영재선생의 집 앞에 펴놓은 벼단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자동차대렬에 손 짓하였다. 그러자 주런이 늘 어섰던 차들이 후진하여 마 을뒤로 난 소로길로 돌아가 는것이였다. 황급히 벼단을 거두던 그의 어머니는 너무 감심하여 혀를 차며 말했다.

군대로구나.》 한해전 이맘때 이 길로 남 조선군의 자동차들이 미친듯 이 달려왔다. 그것들은 오영 재의 집만이 아닌 이웃집들 에서 퍼놓은 벼단들을 사정 없이 깔아뭉갰다. 말그대로 군복입은 강도의 무리였다.

《역시 인민군댄 영 다른

오영재선생은 자기들도 넉 너치 못하 식량을 살림이 어

## 인정의 바다.

런 물음을 받은적이 있었다 고 한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는 가고. 철없을 때 떠나간것 이 이제 와서 후회되지 않 는가고.

그때 그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혈육들이 한지붕아래서 한 생을 살아가는것을 누군들 바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남 조선에 그대로 머물러있었다 면 자그마한 인생의 울타리 밖을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을것이고 해빛이 찬란히 비치는 밝고 아름다운 세계 를 영영 모르고 한생을 마쳤

을것이라고.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정의 토로였고

심장의 웨침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

는가. 영재선생은 평범한 병사였다. 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 재산이란 군용배낭 하나뿐, 말그대로 두주먹뿐이였다. 거 기에다 고향이 남조선인 그 에게는 북에 가족, 친척들도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하는것 없었다. 말그대로 혈혈단신이 였다.

의 어느한 건설사업소에서 로 지체험을 나갔던 오영재선생 서 먹는다고 떠들면서 조선 동을 하던 그에게서 본인도 이 생활에서 처신을 잘하지

언제인가 오영재선생은 이 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겨 그를 작가학원(당시)에 불 러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국가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 린 교복을 입고 무의무탁생 으로서 다른 학생들보다 두 배나 되는 장학금을 받으

> 되였다. 그가 참된 삶의 닻을 내 린 공화국은 어머니를 대신 해주었고 혈육을 대신해주었 다. 아니, 부모도 혈육도 미 처 줄수 없었던 사랑을 주고 정을 부어주었다.

며 2년간 문학공부를 하게

하기에 오영재선생은 자기 가 지은 첫 시가 발표될 때에 도. 동지들의 따뜻한 축복속 에 결혼식을 하고 첫 자식이 태여나던 날에도. 국가의 배 려로 외국에 가족휴양을 떠 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 내주신 생일상을 받을 때에 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 못들군 하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길 때 오 낳아준 어머니보다 더 따뜻 주고 내세워준 당과 국가의 은정이 너무 고맙고 그 위대 한 사랑과 인정의 이야기를

이 괴로웠다. 1978년 가을 서사시창작을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평양 위해 반년나마 제강소에 현

O

口

O

卫

O

狙

에

들속에서 좋지 못한 반영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를 두고 누구보다 마음쓰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

시고 오영재가 어떤 사람인 가. 그가 어떤 작품을 썼는 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앞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음성으로 그 동무가 어린 나이에 혁명을 하겠다 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잘 싸 웠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 고, 우리는 지난날 남조선에 서 못살고 천대받던 그에게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 주었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 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 는 영예로운 작가대렬에 세

워주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강소에 내려 가 그의 현지생활을 다시 구 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한 과 았다. 업을 주시였다.

며칠후 제강소에 내려갔 던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오영재가 현지체험기간 로동 에 성실하고 인간됨도 좋았 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믿음에 찬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나는 좋은 작품을 쓴 그 작가를 믿습니다. …

그는 우리와 한대오에 서있 는 혁명동지입니다. 결함과 과오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허물처럼 함께 가슴아파하며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혁 명을 해나가야 할 귀중한 혁 명동지란 말입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형제들 과 헤여져 수령님의 품을 찾 아왔으며 지금까지 근 30년 간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랐 다, 그는 영광스러운 혁명대 오에 서서 어려운 후퇴의 길 도 걸었고 허리띠를 졸라매 고 전후복구건설도 하였으며 창작적열정으로 심장을 불태 우며 작품도 썼다, 그는 우리 와 함께 혁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며 우리가 공을 들여 키운 작가이다, 작가의 가슴 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창작 을 시킬데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에 감복한 오영재선생이 오 래동안 고심한 끝에 서사시 《인민의 아들》을 완성하여 감사의 편지와 함께 그이께 삼가 올리였을 때에는 《당 에 충직한 시인》이라고 활달 한 필체로 감사의 회답을 써 보내주시였다.

최고사령부는 곧 영명하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 모르고있던 문학적재능의 싹 못한것으로 하여 일부 사람 의 최고상인 김일성상계관인 향을 불러일으켰다.

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 시고 1977년과 199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수여받 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그리고 1995년 12월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 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도

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가 년로하여 정상출근을 못하게 되자 자 택작가로 글을 쓰도록 해주 시고 새로 일떠선 살림집까 지 배려하여주시였다.

흔히 사람들은 친어머니도 주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당 이 주고있다고 노래하군 한 다. 오영재선생은 그 참뜻을 자신의 생활로, 한생을 통하 여 깊이 체득하였다.

어느해인가 오영재선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드린 옷감으로 곱게 지은 조선치 마저고리를 입고 사진을 찍 고나서 그 심정을 편지에 담

이 세상에는 시를 전문으 로 쓰는 시인들이 헤아릴수

되는것일것이다.

하다면 공화국의 품에서

2012년 설날아침 눈물에 젖은 두볼을 훔치며 《로동 신문》을 펼치던 사람들은

영재선생이 쓴 가요 《조선의 힘》이 크게 실렸던것이다.

불과 두달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상 계관이이며 무력영웅이 오영 재선생의 령구에 화화을 빈 내신 소식을 《로동신문》에 서 보았던 그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 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에 대 한 력사의 총화와도 같은 송 가이며 장군님을 영원히 높 이 받들어모실 전체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 낳은 맹세 의 합창곡인 《조선의 힘》 또한 1989년 5월 공화국 은 나오자마자 폭풍같은 반

《…사람이 자식을 낳은 것으로 부모가 아니지. 그애 장래와 전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것이 부모인데… 나는 너무도 부끄럽고 진토 마음껏 노래하지 못한듯한 만도 못한 존재라 너에게는 더 말할것도 없구나. 너의 소 식을 들으니 한이 풀리는구 나. 내 이제 죽는다 해도 한

영재선생은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하여 자기를 소중히 품어주 고 키워 내세워준 고마운 어 머니조국에 대한 감사의 눈

의용군출신의 시인 오영재 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신념의 웨침이 울리고 또 울 리였다.

이라고.

## 영생하는 애국의

없이 많다

그들모두가 한결같이 바라 는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사 랑을 받는 시를 쓰고 그 시 와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 에 영원히 남아있는 시인이

삶을 꽃피운 오영재선생은 과연 어떤 시들을 세상에 내 놓았고 어떻게 되여 오늘도 조국과 민족이 사랑하고 기억 하는 재능있는 시인으로 남 아있는것인가.

깜짝 놀랐다.

신문의 1면에 뜻밖에도 오

그런데 함박눈도 흐느끼 며 쏟아지던 피눈물의 12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을 보내고 맞은 새해의 첫아 풍모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 침 《로동신문》 1면에 시인 의 유고작이 실린것이다.

이 없을것같다. …》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오 미구에 끝이 날 한생에 대한 그 눈물은 어머니를 대신

물이였다.

절세위인이 계시는 공화국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의 의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 겨살 진정한 고향이고 조국

어떻게 되여 세상에 나왔는

오영재선생은 위대한

특히 오영재선생의 1980년

대 작품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인 가사 《흰눈덮인 고

향집》은 자기의 운명을 지

켜주고 보살퍼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보람차고도 영광

스러운 창작의 길을 걸어온

그는 태양의 성지에 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노래하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안겨

준 눈과 봄빛이라는 시적

발견은 오랜 기간 위대한 스승

의 각별한 지도와 부살피심

을 받으며 창작생활을 하는

과정에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매혹과 신뢰감이 터친 화희

사나운 눈보라에도 끄뗙않

고 거연히 솟아있는 정일봉과

떠오르는 아침해발속에 유난

집은 사나운 눈보라를 길들

인 전설적인 위인의 모습으로

안겨들어 시인의 마음속에 세

그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

순간에 벌써 온 나라 인민의

려퍼지는 위인칭송의 노래와

찬 격랑을 일으키였다.

심장을 틀어잡았다.

고싶었다.

였다.

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다.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

이 모시고 받든 시인이였다.

가를 미처 다 알수 없었다.

의 시각에 애타게 찾은분도 그러나 사람들은 위대한 수십년세월 자신의 생을 지 백두령장의 고귀한 업적을 켜주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칭송한 국보적인 그 작품이 장군님이시였다.

찬가였다.

해나갔다.

2011년 10월 오영재선생 이 사망했다는 비부를 들어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 내 가슴아파하시며 오영재만 한 시인이 다시 나오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그의 애 국의 삶을 높이 평가해주시 였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 부고를 잘 써서 내고 장례는 기관장으로 하며 화환을 보 내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 라 고인의 령구를 신미리애 국렬사릉에 안치하며 가족들 을 위로하는 위로연까지 차 려주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조선의 힘》뿐만 아니 라 오영재선생의 유고작들을 《로동신문》에 내도록 해주 시고 유가족들에게 대를 두 고 전할 뜨거운 사랑을 안겨 주시였다.

시인 오영재!

그는 온 겨레가 운명도 미 래도 말길 푺은 과연 어디인 가를 자신의 곡절많은 인생 행루를 통해 격조높은 시를 통해 말해준 민족의 한 성원 이였고 겨레가 두고두고 기억 할 참된 작가였다.

히도 빛나는 백두산밀영고향 시인 오영재선생이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 안겨 써낸 시작품 은 무려 1 000여편에 달한다.

그 많고많은 시들과 가요들 은 참된 조국의 품에 안긴 인 은 세상에 고성을 울리는 그 간의 삶은 영생한다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며 민족 의 력사속에 끝없이 울려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 서

#### 포들이 총력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 극 펼쳐나서고있다. 동 포사회 그 어디서나 우 리 학교 사랑하는 운 동, 모교를 사랑하는 운 동이 힘있게 벌어져 민 족교육열기가 날로 고조 되고있다.

조

皿

## ▶사랑의 교육원조비 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지난 4월중순 어느날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 고급학교 구내에서는 류 다른 환희가 감돌고있었 다. 바로 이날이 학교창 립 70돐이 되는 날이였 기때문이다. 창립일을 의 의깊게 기념하자고 하면 서 교사앞에 있는 화단 에 자기들의 애국의 마 음이 어린 꽃포기들을 정성다해 심던 학생들은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 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보내주 시였다는 소식이였다. 교정에는 감 격의 파도가 물결쳤다. 교직원, 학 생들은 한결같이 교육원조비와 장 학금이야말로 거치른 이역땅에서 민족의 혈통, 애국의 넋이 꿋꿋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이어지게 하는 사랑의 젖줄기, 정 신적자양분이라고 격정을 터뜨렸다. 노래모임이 진행된 학교체육관

에서는 위인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초급부로부터 고 급부에 이르는 전교학생들이 충 성의 노래, 애국의 노래를 목청 껏 불렀다. 그들은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동포들의 사랑이 깃든 새 교사

얼마전 총련 아이찌조선중고급 학교에서 새 교사준공식이 진행 되였다.

대지진을 비롯하여 일본땅에 항시적으로 들이닥치는 자연재 해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기 위해 이곳 동 포들은 새 교사건설을 발기하였

다. 《미래건설위원회》로 명명 된 새 교사건설위원회가 조직되 였다. 건설과정은 순탄하지 않았 으나 동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 고 학교를 애국운동의 거점으로 꾸리는 사업에 무엇을 아끼겠는 가고 하면서 저저마다 지성을 바 치였다. 그 노력의 산물로 새 교 사가 번듯하게 일떠선것이다. 준 공레프를 끊는 총련일군들과 교 직원, 학부형들, 학생들의 얼굴 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 학교에서 수십년간 교원으

로 사업하였다는 한 동포는 모 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 말 흐뭇해진다고 하면서 동포들 의 사랑이 깃든 새 교사에서 열 심히 배우고 배우라고 학생들에 게 간절히 당부하였다.

본사기자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2023년 첫 순회공연 《바람이 되여》 가 8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 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 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부의장들, 김정 수 금강산가극단 단장, 고덕 우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 포들, 후지노 마사가즈 일조 학술교육교류협회 회장, 일조 우호촉진도꾜의원련락회 대표 등 일본의 각계인사들이 공연 을 관람하였다.

총련 금강산가극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 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 서한관철에로 전체 총련일군 들과 동포들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기 위하여 순회공연을 준비하였다.

기악연주 《바람이 되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증 창 《번영하라 조국이여》, 무 용 《모란봉의 봄》, 남성독창 《아 내 조국》 과 주체적민족 예술의 우아함과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 성이는 동포사회의 모습을 형 상한 녀성독창 《꽃노래》, 독 무 《평고춤》, 무용 《조가비 춤》, 해금5중주 《준마처녀》, 발히 벌려 동포들에 장새납독주 《그네뛰는 처녀》 게 기쁨과 희망을 안

와 민요련곡들이 올랐다. 시 《아이들아 이것이 우 리 학교다》. 녀성중창 《봄

바람》, 가야금과 저대독주 《미래를 향하여》의 종목들 은 그 어떤 역풍속에서도 사 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지 키기 위해 민족교육고수투쟁 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총 련일군들과 동포들을 고무격 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련 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 고있는 조국의 모습을 형상 한 무용 《강성부흥아리랑》 은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

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허종만의장은 김정수단장

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

요성원들을 만나 공 연성과를 축하해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 을 이어 금강산가극 단사업에 언제나 깊 은 관심을 돌리고계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공연활동을 활

욱 고조시켜나갈데 대하여 강 조하였다.

> 도꾜에서 살고있는 84살 난 동포는 《해마다 진행되는 금 강산가극단의 순회공연을 매 번 관람한다. 공연을 관람할 때마다 그러하였지만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고 조선사람의 기상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 고 조선민족의 긍지와 감격으 로 나의 마음은 더욱더 젊어 지고 깨끗해진다. 바로 이것 이 내가 장수하고있는 비결이 라고 확신한다. 특히 이번 공 연무대에 오른 무용종목들이 모두 세련되였고 민요도 너무 흥취를 돋구어 어깨춤을 추 고싶을 정도였다.》고 흥분된 심정으로 말하였다.

60대의 한 동포는 《참으로 을 비롯한 금강산가극단 주 감동적인 공연이여서 시간이

겨주며 그들의 애국열의를 더 가는줄을 몰랐다. 정말 훌륭 한 공연을 보았다. 〈바람이 되여〉라는 순회공연의 제목그 대로 금강산가극단 배우들은 거치른 이역에서 한시도 조국 을 잊지 못하고있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조국사랑, 민족사랑 의 뜨거운 바람을 가져다주었

> 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에구찌 세이자부로 《도 巫-평양 무지개다리》 대표 는 《조선과 관련된것은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 야 한다. 오늘과 같은 무대는 조선예술의 힘을 페부로 느끼 게 하는 귀중한 마당이다. 앞 으로 일본당국의 반공화국외 곡선전을 믿지 않고 정의를 사랑하는 일본사람들로 회원 대렬을 더욱 확대해나감으로 써 일조교류를 힘있게 촉진시 켜나가겠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망둥어 제 새끼 잡아먹듯

근로대중에게는 검찰깡패의

폭군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

면서도 외세에게는 한없이 굽

신거리며 경제를 통채로 떠넘

기고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섬기면서 전쟁불장난만 일삼

항쟁이 일어난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 재와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반 대하고 사회정치생활의 자주 화, 민주화실현을 위한 남조 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반 파쑈항쟁이였다.

광주의 피바다우에서 권력 을 강탈한 전두환군사깡패무 리들이 장기집권을 획책하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들고 일어나 《호헌철페》, 《직선 제개헌》, 《독재타도》를 웨 치면서 대중적인 항쟁을 벌리

청년학생들이 앞장서고 로 동자와 농민, 지식인, 종교 인, 재야정계인물들, 중소기 업가, 상인, 일반공무원들 지 어 전투경찰대원들까지 합세 하여 연 500만명이 참가한 대

올해는 남조선에서 6월인민 중적인 항쟁은 군사파쑈독재 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미국 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 흔들어놓았다.

> 6월인민항쟁은 불의와 파쑈 를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의지와 투쟁기개를 다시금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남조선인민 들이 외세와 그와 결탁한 파 쑈독재자들의 회유기만에 절 대로 속지 말아야 하며 사회 의 자주화, 민주화를 철저히 실현할 때까지 반미반파쑈투 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러나가 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도 남

> 6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 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 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 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사파 쑈독재와 다름없는 검찰깡패 정치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바라는 인민들의 지 향과 요구가 무참히 짓밟히

유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인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유신》 독재자를 찬양하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6월 인민항쟁용사들과 인민들을 모독하고 우롱하였다.

또한 자주정치, 민주정치 를 요구하는 인사들과 단체 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다 못 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 하는 로동자, 농민, 시민사 회단체들까지 《불법세력》, 《내란세력》으로 몰아 폭압 을 가하고있으며 있는 사실 을 그대로 전한 언론들에 대 《가짜뉴스의 진원

지》라고 하면서 파쑈칼부림 을 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물 론 천년숙적인 섬나라족속들 과도 손잡고 반공화국전쟁대 결책동에 미쳐날뛰며 이 땅 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남 조선에서 식민지파쑈독재체 제, 반공화국대결체제는 더 욱 강화되고 인민들은 헤아 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

하기에 6월인민항쟁용사들 이 《호헌철페》, 《독재 타도》, 《민주헌법쟁취》, 《군사독재 지지하는 미국 물러가라!》의 구호를 들었 던것처럼 오늘 남조선 각계 층은 《공안탄압, 로조탄압, 초불탄압 막아내자!》, 《검 찰독재 윤석열탄핵!》, 《미일 의 전쟁돌격대 윤석열퇴진!》, 《퇴진이 평화다!》 등의 구호 를 들고 반미, 반독재, 반윤

석열투쟁에 펼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을 파쑈의 란무장,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핵전 쟁의 발원지로 전변시킨 윤 진!》, 《윤석열을 몰아내자!》, 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사대매 국노, 파쑈독재자, 대결미치 팡이들의 죄악을 철저히 결 아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기가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정의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

김 순일 | 있는것인가.



무슨 1년간 《성과》에 대해 광고하고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라는자는 《특별강연》이라 는데서 《안보강화》이니, 《대선지지회복》이니 하고 현 《정부》의 《성과》에 대 해 구구히 늘어놓으며 지지 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발목잡기》에 있다고 두덜

요즘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댔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 것들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외교《성 과》를 부각하는 폐지를 신설 하는 등 윤석열역도의 1년간 《치적》을 광고해대고있다.

낯가죽이 곰발통같은자들 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집권 1년간 무슨 《성과》가 있다고 그리도 침방울을 튕기 며 제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 는것이다.

1년간 평가는 제스스로 하 는것이 아니라 바로 민심이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민심 의 생동한 현장인 거리거리들 에서는 어떤 웨침들이 울려나 오고있는가.

《윤석열이 재난이다.》, 《윤석열심판!》, 《윤석열퇴 ▮ 《살인자는 권력의 자리에서 ▮ 물러나라!》···

남조선의 거리거리들에서 산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 | 터져나오는 이 윤석열타도함 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 🛮 성들에 역도의 집권 1년 평 남조선 각계는 왜 성난 목 소리로 윤석열퇴진을 웨치고

> 추악한 전쟁하수인의 매국문 서이다.

>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도 역 적패당이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서》에 대해 《대결에 방 점을 둔 전략서》, 《굴욕으 로 일관된 외교안보문서》, 《대국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전략》 등으로 강력히 규탄하 고있는것이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 대의 흐름과 민족의 념원, 민 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



한 《지지》를 간청하였다.

많은자 《치적》타령

역도가 집권하여 해놓은것

이란 하나에서 열까지 민심에

역행하는것이고 이런자를 그

냥 둬두었다가는 남조선인민

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기

실제로 지난 1년간은 남조

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악몽이

다. 그런가 하면 친재벌정책

떠벌이며 로동자들의 목을

조이는 로동개악을 하여 분

을 비롯한 로조들이 다 들고

일어나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

지 들에서도 샌다

는 속담이 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

노를 자아내고 《민주로총》

을

9

실시하고 《로동개혁》을

때문이다.

검찰에 있을 때 사람잡는 나중에는 우리 민족의 천 기질밖에 배운것이 없는 윤 년숙적인 일본의 과거죄악 석열역도는 집권해서 온 남조 을 무마해주면서 재침의 길 선땅을 검찰독재의 무시무시 잡이, 섬나라의 핵오염수방 한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저 류를 비호두둔하는 《변호 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 사》 노릇까지도 서슴지 않 리는 세력과 야당들을 모조 았다. 리 적으로 돌리고 정치보복 과 수사의 칼부림을 해대였 고 빈부격차는 하늘땅차이로

벌어지고 전쟁위험이 최대로 높아가는 속에 사람이 죽고 경제가 죽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 실이다.

이 모든것은 누구의탓이 아 니라 정치는 무능하고 경제는

무지하며 외교는 문외한인데 다 사대매국은 극성이고 전쟁 대결은 광적인 유석열역도에 의해 빚어진 비참상이며 역도 의 《치적》이라고 해야 할것 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은 윤석 열역도의 1년간 죄악에 대해 《군사독재시대를 련상시키는 1년》, 《민중의 입과 귀를 가리우는 암흑정치의 1년》, 《〈국정〉 무능을 남의탓으 로 돌려온 뻔뻔스러운 1년》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불안에 떨어온 1년》 등으로 락인하고 규탄 하고있는것이다.

무지무능과 반인민적악정. 사대매국과 전쟁책동 등으 로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아 온 윤석열역도를 그대로 두 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고 하면서 반미, 반전, 반 《정부》 투쟁에 펼쳐나선 민 심의 목소리에 역도의 죄악 에 대한 총평이 있고 판결 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그 무슨 《성과》에 대해 운운하고있으 니 가소로운 《치적》 자랑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한일 혁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 화국의 자위적억제력강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 위협》 으로 규정하고 이를 《독자 적대응능력》과 미일남조 선《동맹》강화로 《강력히 억 제》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국가안보전략서》

라는것을 발간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 국압살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추악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곧 신성한 존엄과 국토, 인민 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힘이 며 조선반도와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 을 받아왔고 최근 더더욱 로 골화되고 강화되는 미일남조 선의 군사적결탁과 전쟁위협 책동은 공화국이 정의의 힘 수호의 힘을 갖추고 비약시켜 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 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투 쟁에 남녀로소가 펼쳐나서고 있다.

정치인, 사무원, 로동자, 농민, 종교인, 청년학생 등 남조선 각계층이 전역에서 웨 치는 《윤석열퇴진!》, 《윤석 열역도는 물러가라!》, 《매국 노 윤석열을 몰아내자!》의 함 성은 날이 갈수록 그 진폭이 거세여진다.

어찌 보면 수년전 박근혜역 도를 탄핵하던 때를 방불케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정치

# 전쟁하수인의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 욱 위력하게, 누구도 견주지 못하게 다지고 벼리여온 공화 국의 가공할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전률할뿐이다.

그런데 감히 윤석열역적패 당이 가소롭게도 《독자적대 응능력》을 떠들고있으니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 의 객기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역적패당이 미국과의 《포 팔적전략동맹》 구축, 일본과의 《새로운 미래》를 운운하였 는데 이것은 남조선을 미일의 2중식민지로 전락시키는것도 모자라 조선반도를 통채로 외 롱락물, 식민지로 만들 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조선반도를 집어삼키지 못 해 안달아하는 미국과 재침의

칼을 벼리는 섬나라것들과의 군사적결탁으로 공화국과의 전쟁대결을 성문화한것도 모 자라 역적패당은 세인의 지탄 을 받아 넝마짝이 된 《담대 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 을 또다시 내흔들며 반공화국 모략기도도 드러냈다.

패당의 이른바 《국가안보전 략서》라는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극악한 전쟁각본, 대 결각본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에서 새로운 전쟁을 망상하 는 미일상전에게 남조선을 침



도 인지하지 못하는 청맹과 닐수 없다.

공화국과의 전쟁대 결을 위해 《협력》 과 《공조》를 구걸 하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들어맞는 말이기도

얼마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 라는자는 아시아안 보회의라는데 기신기 신 기여들어 그 무 슨 《위협과 도전》 **◇** 이니, **《**북인권문 제》이니 하고 떠벌 이면서 반공화국제 재압박 《공조》를 구

걸해나섰다고 한다. 특히 이자는 미일 상전들과 머리를 맞 대고 공화국을 걸고 들면서 《안보》현 안에 대한 정보공 유, 정기적인 전쟁연 습 등 《3자군사협 력》을 모의하였다. 한편 《외교부》

장관이라는자도 여 러 나라들을 돌아 치며 윤석열역도의 《대북정책》에 대

미국산전쟁노복들의 구차한 비럭질, 대세의 흐름을 조금 니들의 가소로운 망동이 아

갈수록 격화되고있는 조 선반도의 정세긴장이 미일상 전을 등에 업고 전쟁대결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의 무모 한 군사적망동에 의한것이라 는것은 세인이 인정하는것 이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 지는 전쟁연습과 군비확장 등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 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 하는 주요인자들이다.

이며 미국상전에게 구걸하고 일본《자위대》까지 끌어들이 는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시시각각 핵전쟁의 림계점에 다달으고 이것은 세계평화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있다.

이런 속에 역적패당이 또 다시 미일상전과 반공화국대 결모의판을 벌린것은 남조선 을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완 전히 내맡기고 미국주도의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 작에 극구 가담해나서는 무

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 는것이다.

빌어먹는데 습관되면 낮가 죽도 두꺼워지기마련인것처럼 구걸외교에 습관이 되고 체 질화된 역적패당은 국제무 대에 나서기만 하면 공화 국을 걸고들며 《지지》와 《공조》의 동냥바가지를 흔

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상 대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박》을 쉬임없이 주절대 는것이다.

역적패당의 대결《공조》 구걸놀음은 지역정세를 극도 동을 정당화해보려는 파렴치 한 궤변이며 북침야망이 골 수에 찬 대결광들의 무지스

러운 정치적도발이다.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악화의 책임을 전가 해보려는 역적패당의 어리석 은 작태가 반공화국《공조》 구걸놀음에 비껴있는것이다.

주인 믿고 짖어대는 개가 더 밉살스럽기마련이다.

미일상전만 믿고 푼수없이 분별한 군사적망동이 아닐수 놀아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그것도 모자라 갈수록 무 받는것은 물론이고 조선반도 시되고 랭대를 받는 반공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국압박《공조》를 되살려보 랭대와 압력에 시달리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종교단체들의 시국선언과 각

이한 계층이 참가하는 초불집

민심이 추켜든 반윤석열투쟁

남조선 각계는 박정희, 전

두환, 로태우역도를 파멸시킨

지난 시기의 인민봉기, 항쟁

들을 재현하여 보수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하면서 투쟁형

식도 《운동》에서 《항쟁》 으

구호도 《퇴진》에서 《타도》

로 그 강도가 더 세지였다.

회, 시위투쟁, 성토모임…

류 광 훈

평론가는 지금 벌어지고있는

조짐이 보인다.》 는 민심의 평 에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따라 가는 윤석열역도의 종말이 비 껴있다.

사태는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 에서 쫓겨날 때와 류사한 상 황이다, 이제 윤석열이 갈길 은 박근혜가 간 길밖에 없다

《윤석열정권 조기붕괴의

통하였다.

고 분석하였다.

《백마디공주》라는 별명으로

건사 못해 《도리도리윤》, 《윤도리탕》으로, 《주 120시 간로동제》, 《손로동은 아프 리카에서나》, 《돈없는 사람 은 불량식품이라도》와 같이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여 《1일1망언후보》로, 오만방자 하게 놀아대는 녀편네의 행실 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 통령을 처음 해봐서…》와 같

윤석열역도가 당선되여 제

일먼저 찾아간것은 박근혜역

도였으며 만나서는 《늘 죄송

했다.》, 《명예를 회복시켜주

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무엇이 《죄송》 했고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박근혜역도에게 쇠고랑을

채웠던것이 《죄송》 한것이라

면 희대의 《국정롱단》으로

남조선을 암흑세계로 만들었

던 박근혜를 끌어내린 초불투

쟁이 《잘못》된것이라는 수작

이고 《명예회복》은 곧 박근

혜가 이루지 못한 《유신》 독

재부활의 망상을 자기가 실현

하겠다는 《맹약》으로 보아

혜역도를 릉가하는, 《유신》

독재에 짝지지 않는 화쑈독재 의 추악한 자취를 이어왔다.

전례없는 《검찰공화국》을

실제로 윤석열역도는 박근

사실은 이미 알려져있다.

는것이였겠는가.

야 할것이다.

은 부실한 대답을 하여 《무 지몽매한 인간》 등으로 통칭 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정신적, 심 리적면에서 박근혜역도를 그 대로 빼물은 윤석열역도여서 사람들은 《바지입은 박근 혜》, 《남자 박근혜》라고 야 유하였다.

이런 윤석열역도가 박근혜 역도의 전철을 따라가는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것이 아

력》으로 락인되여 무지한 파 쑈폭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민생을 살리라, 농민을 죽 이지 말라, 《로동개악》, 《교육개악》을 반대한다고 토로하며 각계층이 초불을 들 었건만 그들도 《불법폭력세 력》으로 몰리우고 이를 보도 한 언론들은 《가짜뉴스 진원 지》로 매도되고있지 않는가.

윤석열역도가 몰아온 파쑈 광풍의 회오리속에 남조선에 는 박근혜역도때보다 더한 암 흑시대가 도래하였다.

박근혜역도가 남조선을 행 각한 미국대통령앞에서 숙 제 검열받는 학생처럼 머리 를 굽석이며 비굴하게 놀아 대였다면 윤석열역도는 그보 다 훨씬 더 비굴하게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 고 굴종의 최고기록을 세우

미국과는 덮어놓고 《동맹》 강화를 고아대며 정치이고 경 제이고 군사이고 달라는대로

다 주며 섬기고있다. 섬나라것들과도 **《**미래**》**를 운운하며 과거의 피비린 죄과 도 덮어주고 천년숙적의 재침 야망에도 박수를 쳐주고 길을 내여주며 과거의 식민지시절에 로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리고있다. 외세에게는 그렇게도 극성 이지만 공화국을 향해서는 망

언, 폭언에 광란적인 전쟁망 동을 부리며 지랄발광이다. 윤석열역도가 지난 1년간 외세와 결탁하여 강행한 반 공화국전쟁연습과 전쟁모의들 은 력대 집권자들의 북침전 쟁책동규모를 훨씬 릉가한다.

역도를 불래우는 오늘의 초불바다

무지무능한 《닭그네》는 결국 임기도 다 못채우고 《탄핵》의 초불바다에 타버 리고말았다.

박근혜를 닮고 박근혜를 따라가던 윤석열역도도 지금 퇴진의 거세찬 함성에 직면 해있다.

그것도 집권해서 이제 겨우 1년밖에 안되였는데 남조선의

각계로부터 규탄배격을 받고 퇴진압력을 받으며 《조기붕 괴》의 벼랑끝에 서있으니 박 근혜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 는 반윤석열투쟁의 형태와 양 상을 보면 박근혜탄핵시기와 비슷하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단체,

로 전환하였다. 그런 속에 박근혜탄핵시기처 럼 풍자문화도 번성하고있다. 《대통령》 후보랍시고 거들 먹거릴 때부터 역도와 그 일 가족속들의 부정부패와 《정 책공약》, 동족대결망발을 신

랄하게 풍자하는 동영상편집

물과 그림, 사진들이 인터네

트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였다.

권력을 가로타고앉은 후에는 《술통령》의 본색을 풍자하는 《투표로 음주문화 확실히 개 선합시다》라는 대형구호막이 서울의 광화문광장과 종로구일 대에 게시되는가 하면 《윤석 열을 심판하자》는 만평이 인 터네트에 실리기도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와 풍자조소의 대상이 되여 퇴진, 심판, 파 멸의 규탄을 받고있는 가련한 윤석열역도이다.

이 모든것은 희대의 정치무 능아, 추악한 사대매국노, 천 하의 대결광인 《윤재앙》이 제스스로 초래한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마 련이다. 하물며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특대형 죄만을 가득 지은 윤석열역도이고보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김정 혁

### 박근혜》 《바지입은

의

같은 종자끼리는 서로 통하 는데가 있기마련이다. 박근혜역도와 윤석열역도 의 권력행적에서 비슷한 점

이 많은것도 그래서인지 모

른다.

시작부터가 닮았다. 박근혜역도는 불과 3.6%의 차이로 당선되였고 윤석열 역도는 그보다 더 막연한 0.73%정도의 차이로 간신히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역도는 《유신》애비 의 후팡으로, 윤석열역도는 《정권교체》에 혈안이 된 《유신》후예들에 의해 등을

떠밀리워서… 그래서인지 박근혜를 《어 쩌다 당선된 그네》로 야유 했던 남조선민심은 윤석열 역도에 대해서는 《얼결에 〈대통령〉 벙거지를 뒤집어 쓴 꼭두각시》라고 조소하 였다.

철저한 미신쟁이라는 점에 서 서로가 짝지지 않는다. 박근혜역도는 최태민과 그 개정도뿐이여서 《닭그네》,

적으로, 대를 이어오며 《세 뇌》되고 지배된 미신쟁이이라 면 윤석열역도는 미신광인 녀 편네에게서 《령》적인 《세뇌 교육》을 받은것은 물론이고 《건진법사》, 《천공스승》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무는 미신쟁이이다.

딸 최순실에 의해 체계

윤석열의 미신추태는 《대 통령》 선거당시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대중앞에 나섰을 때 처음으로 공개되였 고 《대통령》 사무실을 청와 대에서 옮길 때 극명하게 드

러났다. 둘 다 지능지수가 형편없다 는것 역시 빼놓을수 없는 점 이다.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라 던 박근혜역도는 대중앞에 나 서면 할 말도 제대로 찾지 못 해 《어버버》, 귀띔해준 말을 적어놓은 수첩이 없으면 일언 반구도 번지지 못해 《수첩공 주》, 머리속에 든 단어가 백 윤석열역도는 눈길조차

니겠는가.

파쑈와 전쟁광기를 부리는 독재광 만들어놓고 검찰독재의 칼바

람을 일으킨 윤석열역도에 의 해 남조선에서는 반대파세력 에 대한 정치보복이 횡행하 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 한 《민주로총》과 같은 로동 계는 《내란세력》, 《종북세

고있다.





# 아름다운 장비꽃풍경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향기롭고 빛갈고운 장미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장미는 사랑과 열정, 고 상함을 상징하는것으로 하 여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

공화국에서는 여러종의 장 미품종을 풍토순화시키고 국

가품종으로 등록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평양시내의 곳곳에 활짝 피 여나 오가는 사람들을 반 기고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의 정취를 한껏 돋

평양시에서는 여러 품종의 장미를 원림록지구역들에 심 어 수도의 면모를 보다 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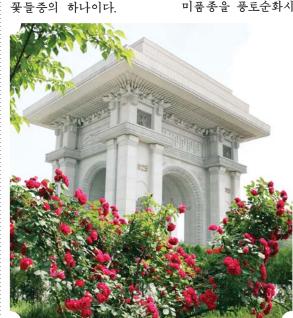
구어주고있다.

롭게 장식하고있다. 공원, 유원지들과 려명거

리, 미래과학자거리, 광복거리 를 비롯한 시내의 곳곳에 피 여난 장미꽃들은 사람들의 마 음을 즐겁게 하여준다.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장미꽃풍경은 서로 돕고 이 끌면서 더 좋은 미래를 창 조해가는 공화국인민들에 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 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령출은 1910년대초에 여났다.

어머니는 조명암이였던 그의 본명을 고향에 있는 령인산의 첫 글자를 따서 령출이라는 아명으로 지어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가 애정을 담아 조용히 부르던 아명은 작가의 진짜이름으로 되고말 았다.

그는 문학에 뜻을 품고 열정 을 쏟아부은 열혈작가였으며 이국땅에서 피눈물나는 고학 생활도 맛본 문필가였다.

고학당시 자기가 쓴 작품

이 1등으로 당선되었을 때 작품이 불온하다는 리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그 는 《진주라 천리길》, 《집 없는 천사》, 《락화류수》를 비롯한 수많은 가사들을 써 내는것으로 놈들에게 항거해 나섰다.

해방후 서울에서 조령출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장막 희곡 《혁명군》(《독립군》)을 창작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그의 창작적재능은 공화국 의 품에 안겨 보석과도 같이 빛을 뿌리게 되였다.

사가 조정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대인 문학예술인들

그는 시, 희곡, 가극문학의 창작, 민족고전작품들의 각색 과 윤색 등 다방면에 걸치는 창작활동에서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령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 대적미감에 맞게 개작할 결싞 을 품고 해방전 한탄의 상징 으로 된 가사들을 새롭게 완 성해나갔다.

《법성포배노래》, 《양산 도》 등이 그런 민요들이며 특히 그가 가사를 짓고 그 의 안해가 편곡한 민요 《모 란봉》은 내용에서나 선률에 서나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노래이다.

그는 《조국보위의 노래》, 보적인 명곡으로 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 신 만경대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의 깊은 동경과 사랑,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

의 감정을 담은 가사를 심혈 을 기울여 창작하였으며 이것 을 본 작곡가 김옥성이 흥분 하여 그 자리에서 가사에 곡 을 붙였다. 이렇게 되여 세상 에 태여난 명곡이 바로 《만

조령출은 《전우》, 《리 순신장군》 등을 비롯한 희 곡들과 《콩쥐팥쥐》, 《바 다의 처녀들》, 《금강산팔 선녀》 등 가극대본들 역시 손색없이 집필하였다.

경대의 노래》이다.

공화국에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 대이후 집체창작의 책임을 진 그는 가극 《금강산의 노래》, 《밝은 태양아래에 서》, 《밀림아 이야기하라》, 음악무용극 《두만강반에서 《압록강 2천리》, 《얼룩소 의 한해여름》의 창작과 불후 야 어서 가자》, 《어머니 우 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 리 당이 바란다면》을 비롯 의 운명》을 혁명가극으로 옮 한 수많은 가사와 시들도 국 기는 창조사업에서 특출한 공 훈을 세웠다.

김일성상계관인인 그의 작품집으로는 《조령출시선 집》, 《조령출희곡집》 등 이 있다.

김 은 철

## 보 ኍነ 经号码 LH 경 CH

칠보산의 내칠보구역에 위치한 내경대는 내칠보 의 안쪽경치를 가까이에 서 둘러볼수 있다고 하여

내경대는 승선대와 탄

내경대라고 부른다.

책봉, 피아노바위, 례 문암, 가마바위 등이 금대사이 금강골에 위

치한 곳으로서 멀리로는 한눈에 안겨오고 가까 망월대, 무희대와 함께 이로는 타종암과 종각 넘쳐나게 담은 밥그릇같 봉, 유람선바위를 비롯 한 수많은 기암괴석들 은 반두암, 《팔만대장 을 부감할수 있는 곳에 경》을 꽂아놓은듯한 서 있다.



본사기자

공화국에서 학생교복과 가 피복생산단위들에서도 공정조 방, 학용품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지방공업성, 경공업성의 일

학 생 교 복 과

군들과 련관단위 일군들, 피 복전문가들은 학생교복생산 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 여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 며 생산지휘를 치밀하게 진행 하고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과 황해북도, 라선시를 비롯한 각지의 피복공장들에서는 설 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어김없 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 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여러가 지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 여 교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 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전국적으로 소학교 3학년 녀학생들을 위한 여름철교복 생산이 결속되여 공급을 시 작하였다.

피복공장들에서는 생산한 교복을 학생들에게 입혀보면 서 매 학생의 몸에 꼭 맞는가 를 알아보고 미흡한 점을 퇴 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 서 일정계획을 드림없이 수행 하고있다.

학생가방생산을 위한 투쟁 은하무역국과 봉화무역국의 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평양가방광장, 평성가방광 장, 사리원가방공장의 생산자 들은 친자식에게 메워줄 가방 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제품

학용품생산에

의 질과 가공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학용품생산단위들에서도 생 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룡봉학용품공장과 소나무학 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 들은 질좋은 학용품을 더 많 이 만들 일념 안고 생산정상화 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평양수지연필공장의 군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 의 정비보강과 함께 제품 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있다.

본사기자



시와요.》

백암쥐토끼는 쥐토끼과에 속하는 짐승이다. 몸길이는 15~20cm이고 몸

질량은 130~160g이다. 몸의 크기는 큰 집쥐만 하 다. 주둥이는 뭉툭하고 귀는 를 내면서 재빨리 굴안으로 작고 둥글며 꼬리는 없다. 앞뒤다리는 짧으며 그 길이

는 비슷하다. 발바닥에는 털이 없고 발 바닥못이 드러났다.

몸의 등쪽은 붉은밤색이고 되고있다. 아래면은 재빛흰색이다.

백암군의 높은 지대 는 이끼덮인 바위들이 많고 무성한 숲과 풀 로 뒤덮여있어 백암쥐 토끼들의 생존에 아주 유리하다.

백암쥐토끼는 주로 돌 짬이나 나무뿌리밑에서 사는데 저녁 해질무렵

속이 활랑거리는 등 여러가지

여름철에 비장과 위의 기

능이 약해져 입맛이 떨어지

면 졸인 마늘이나 무우두부

방법으로 치료할수 있다.

- 입맛이 떨어질 때

- 속이 활랑거릴 때

국을 먹으면 좋다.

이나 비내린 다음날 아침해퍼 지는 시간에 무리로 굴앞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상한 소리가 나면 소리 들어간다.

백암쥐토끼살이터는 공화국 의 북부 높은 산지대들에 퍼 져있는 쥐토끼의 대표적인 서 식지의 하나로서 적극 보호



이때 묵은 밀 30g을 달여마

-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여름에 잠을 잘 자지 못하

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

다. 만일 신경과민으로 수면

장애가 온다면 자귀나무껍질

차를 마시면 좋다.

사동구역 리현리에 쑥골이

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봄 이 오면 푸른빛에 은빛이 도 는 쑥들이 마을의 들판과 발 두둑들에 뒤덮여 봄철은 물 론 여름, 가을까지 짙은 쑥 향기속에 묻혀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쑥골이라고도 하고 쑥뗙을 많이 빚어먹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뗙섬이라 고도 하여왔는데 여기에는 쑥 으로 떡을 빚어먹게 된 한 녀인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아득히 먼 옛날 쑥골에 솔 메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솔메는 아련하면서 어여쁘게 생긴 겉모습과 달리 마음은 매우 강직하였다.

그가 처녀꼴이 잡히기 시작 하자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 망울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 에 반하여 사방에서 그의 집 문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청혼 이 들어왔다.

하지만 솔메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모든 청혼을 거절하군 하였다

부모들이 그에게 좋은 혼 인감을 놓친다고 꾸지람할 때 마다 솔메는 방그레 웃으며 《저와 한생 뜻을 같이해야 할 사람인데 제 마음에 들어 야 할게 아니오이까? 부모님 들은 념려마소이다.》라고 대 답하군 하였다.

이 시기 침략의 기회를 호 시탐탐 노리고있던 외적이 쑥 골로 쳐들어온다는 기별이 전 해졌다.

글

김 정 희,

이 소식에 접하자 쑥골마을 좌상인 솔메 아버지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외적을 맞받아

싸움터로 달려갔다. 솔메는 마을의 부녀들과 함 께 전장으로 보낼 식량과 음 식을 마련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분주히 뛰여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해질무렵이

저녁연기가 피여오르는 마 을의 동구길로 전령군사(령을 전달하는 군사)가 탄 말이 요 란한 말발굽소리를 내며 달 려오더니 솔메네 집앞에 멈춰

《좌상어른의 소식을 가지 고왔소이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솔메는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웨 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섬찍 하였다.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그는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 었으나 마음을 다잡으며 문 을 열고나섰다. 문밖에는 부리부리한 눈과 우뚝한 코, 훤칠한 키와 뻐그

러진 어깨로 하여 첫눈에 헌

헌장부로 안겨오는 낯모를 군

사가 서있었다.

《무슨 일로?…》 솔메가 의아한 눈길을 던지 자 전령군사는 품속에서 서신 한장을 꺼내여 그에게 내밀며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그림 채 대 성

《좌상어른이 오늘 외적을 몰아내는 싸움의 선두에서 싸우다가 그만 적의 칼에 맞 고 쓰러졌는데 마지막힘을 다 하여 써보낸 서신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간 솔메는 《호오옹-》 하



더듬었다.

《솔메야, 이 아버지를 죽 인 외적들을 절대로 잊지 말 어라.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

솔메는 피로 얼룩진 아버지 의 서신을 다시 보고 또 들 여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아버

고가는 범이는 좋은 젊은이이

솔메는 아버지를 목메여부

한동안 설분을 토하고나서

르며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다. …》

터뜨렸다.

《아버지!…》

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곧 약해지는 마음을 다 잡았다.

(아버지가 남긴 부탁을 절 대로 잊지 않겠사와요.)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 짐하며 솟구치는 눈물을 가

까스로 참아냈다. 잠시후 무엇인가 생각하다 가 말없이 마구간으로 들어

솔메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 고 투레질하는 살이 진 준마 를 끌고나와 슬픔에 잠겨있는 을 받아들고 황황히 글줄을

군사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제가 집에서 키우던 준마 예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였

《아-니? 이거…》 처녀의 갑작스런 행동에 어 리둥절해진 범이는 얼굴이 수 수뗙처럼 벌개져 그냥 서있기

만 하였다. 《아버지가 남기고간 원한 을 제몫까지 합쳐 꼭 풀어주 기 바라나이다.》

《솔메!》 그제서야 솔메의 깊은 마음 과 결심을 알게 된 범이는 가 슴이 뜨거워져 그의 두손을 꼭 감싸쥐였다.

닷시 외적의 침입이 잦은 때여서 쑥골마을에서는 처녀 들이 좋은 말을 길러두었다 가 혼인할 총각에게 주는 풍 습이 있었다.

솔메가 정성껏 길러오던 준 마를 범이에게 넘겨준것도 결 국은 아버지의 마지막의향을 받아들일 결심을 가지고 그 에게 혼인할 뜻을 표시한것 이였다.

범이는 쑥골의 막바지인 산 기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이름난 사냥군이 였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범 이는 힘이 장사였으며 특히 창던지는 솜씨가 여간 아니 였다.

솔메의 뜨거운 사랑과 굳 은 결심을 가슴속에 고이 간 직하고 다시 싸움터로 달려나 간 범이는 창을 추켜들고 외 적의 무리를 삼대베듯 쓰러 눕히였다.

이렇게 전장에서 여러달 싸 움에만 몰두하던 범이의 몸 이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 갔다. 어렸을 때 앓았던 속병 이 다시 도지였던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솔메 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

으니 부디 이 준마를 받아주 며 그가 돌아오면 병을 꼭 고쳐주어 남아의 름름한 모 습을 다시 갖추게 하리라 결 심하였다.

얼마후 외적을 물리치고 마

을의 장정들이 돌아오자 쑥 골마을사람들은 솔메와 범이 의 혼례식을 성의껏 차려주 었다. 혼례식에 참가한 이웃들

은 장부의 기골에 맞지 않 게 병색이 짙은 범이를 보고 는 모두 혀를 차며 가슴아 파하였다.

범이를 두고 걱정하는 녀인 들의 말을 들으며 솔메는 남 편의 병을 꼭 고쳐주고 건장 한 무사로 보라듯이 내세우리 라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병을 하루빨리 고쳐 주리라 다짐한 솔메의 소원 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약도 지어다주고 약초를 캐여

다 달여주면서 지성을 다하였

지만 남편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가고 달이 흘 러 솔메는 아이어머니가 되 였다.

아이를 돌보기도 헐치 않은 데다 몇년째 가물과 큰물로 흉년이 겹쳐들고 부자들의 걸 터듬질이 늘어나다나니 솔메 는 집생활을 꾸러나가기가 몹 시 힘들었다.

솔메는 그럴수록 이를 악 물고 집안살림살이를 해나가 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속 병을 치료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새벽별을 이고 밭에 나갔다가 저녁별을 이고 들 어오며 곡식을 심어가꾸었고 짬짬이 길쌈도 하였다.

여름철에 속이 활랑거리는 본사기자 주소:평양 통일신보사 7 − 1604 ⊏

여름철에 나라나는

증상에 대한 민간료법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지거나 것은 심장이 약한 표현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시거나 복숭아, 도마도 등을

먹으면 좋다.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